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9, Vol. 14, No. 1, 107 - 124

# 아동의 부모 분리개별화와 애착이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에 미치는 영향: 행동적 자율성의 매개효과

김 용 희<sup>†</sup>

광주여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는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와의 분리개별화가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에 미치는 영향에서 행동적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부모와의 애착경험이 긍정 및 부정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서 행동적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211명의 초등학교 6학년(남자, 104명, 여자, 107명) 아동 211명이었고, 애착, 분리개별화, 행동적 자율성, 긍정정서, 행복감, 우울, 불안과 관련된 척도를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리개별화는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행동적 자율성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애착은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에 직접 영향을 미쳤으며, 행동적 자율성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효과가 지지되었다. 즉 아동이 부모와 분리개별화가 잘 이루어지더라도 자율적 행동이 많이 허용될 때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관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 정서를 높이고, 반대로 불안정 애착일 경우 우울이나 불안감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애착관계 역시 아동의 자율적 행동의 기회가 많아질수록 긍정 정서의 경험을 높이고, 부정 정서의 경험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분리개별화, 애착, 행동적 자율성, 긍정정서, 부정정서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용희, (506-713)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광주여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Tel: 062-950-3677, E-mail: yngkim9@hanmail.net

Freud(1933)가 5세 이전 경험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은 이 시기가 출생과 더불어 가장 취약한 시기임과 동시에 중요한 타인인 부모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기 때문일 것이다. 부모의 태도가 유아의 기본적 신뢰감 형성에 결정적이라고 알려져 있듯이(Erikson, 1967),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 경험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두 가지 주제인 애착과 분리개별화 경험을 다루고자 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두 가지 주제는 관심을 받아왔다(Mahler, 1963; Bowlby, 1980). 양육자와 가까이 있고 싶고 정서적 유대감을 강하게 느끼는 것이 애착이라고 한다면 이에 반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고유성을 지키고 싶고,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이 분리개별화이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과 분리개별화라는 두 가지의 개념이 모두 정서적 경험이라는 것에 주목하여 이들 경험이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의 정서적 요인인 긍정 및 부정 정서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은 한 개인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는 정도로, 긍정 정서를 많이 경험하고 부정 정서를 적게 경험할수록 안녕감이 높아진다. 주관적 안녕감은 정서 요소와 인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서 요인을 다루고자 한다. 정서 경험은 3가지 요소로 설명되는데, 정서적 체험, 생리적 반응, 행동준비성이다(권석만, 2008). 행동준비성으로 볼 때, 긍정 정서는 보다 적응적이고 자율적인 행동 변화와 관련된다 고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애착과 분리개별화를 연구하였다. 12세 아동을 대상

으로 한 이유는 이들이 후기 아동기에 해당되며,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시기와의 맞물리기 때문이다. 애착이나 분리개별화의 문제는 전 생애에 걸쳐서 연구되고 있지만, 특히 사춘기가 시작되는 이 시기는 유아의 제 1분리개별화 이후에 제 2분리개별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보고 있다(Blos, 1979). 따라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분리개별화 단계를 성공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건전한 심리적 발달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Kernberg, 1984), 이후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이 시기의 특성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아동 후기의 애착과 분리개별화에 대한 욕구는 이전의 유아기와 다를 것으로 보이며 실제 이 욕구가 긍정 정서나 부정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Mahler(1963)에 따르면 생후 초기 4-5개월까지 아기와 엄마의 정상적인 공생단계 이후 정상적인 분리개별화 단계가 시작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분리개별화 과정의 주요한 발달은 생후 30-36개월 이전에 나타난다. 한편 Blos(1979)는 Mahler(1963)의 이론을 좀 더 확대하여 생후 30-36개월의 분리개별화 과정을 1차 분리개별화로 보았고 12-15세의 사춘기를 2차 분리개별화라고 하였다.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분리개별화 단계는 심리적 발달에서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실패할 경우 우울, 불안, 성격장애와 같은 정서 및 성격 발달의 장애를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Blos, 1979).

Blos(1962)는 1차 분리개별화는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는 것을 배우는 단계로 실존감, 자기감(sense that I am)을 성취하게 된다고 했다. 그 다음으로 2차 분리개별화에서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인식이나 정체감을 획득하는 것이 주요한 과업이라고 보았다. 즉 청소년기의 주요한 과업이 정체감의 획득임을 고려해 볼 때, 자신에 대한 확실한 이해는 이 시기 뿐만 아니라 성인기에도 건강한 성격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아동의 분리개별화와 관련하여 분리개별화가 잘 이루어진 아동일수록 성취동기가 높았으며(김세영, 2004) 자기효능감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ells & Marwell, 1976). 그리고 아동의 분리개별화는 긍정적인 자아상과 관련되었다(곽민정, 2005).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분리개별화 수준이 높은 경우에 대체로 결혼만족도가 높았고(윤희정, 2004), 대학생활적응도 순조로운 편이었다(조화진, 2004).

분리개별화는 정체성 획득을 통해 부모로부터 개별화 될 수 있다는 것으로(Blos, 1979) 일종의 정서적 측면의 자율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분리개별화는 스스로를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여러 연구들에서 정서적인 측면의 자율감, 즉 분리개별화는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인 애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오히려 잘 발달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Garber & Little, 2001; Ryan & Lynch, 1989). 따라서 이 두 가지 개념은 서로 상반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두 개념의 공통점은 첫째,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자녀를 자신과는 개별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자녀의 욕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두 개념 모두 부모관계를 통한 정서적 경험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애착은 분리개별화와 마찬가지로 부모와

의 중요한 정서적 경험이다. 애착은 Bowlby(1980)가 이 이론을 주장한 이래로 영아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즉 영아는 출생과 더불어 양육자와의 애착경험을 통해 자신과 세상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평생을 통해 수정, 통합, 유지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의 질이 아동의 안정애착 혹은 불안정 애착을 결정한다.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일수록 심리적 자원이 풍부하고, 융통성이 있고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장휘숙, 1998). 이들은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도움을 적절히 이용할 줄 안다. 반면 불안정 애착이는 사교성이 부족하여 또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분노 경험이 빈번하고 충동 통제가 어렵다고 한다(Marrone, 2000).

그렇다면 아동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부모 요인이 무엇일까? Marrone(2000)에 따르면 첫째, 공감해주거나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능력, 둘째, 자녀와 유의미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 이러한 부모의 민감한 반응성의 주된 특징은 자녀를 독특한 욕구를 지닌 독립된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가 애착행동을 보이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는데 이는 애착과 관련되고, 이와 반대로 부모를 벗어나 세상을 탐색하려고 할 때에도 자유를 허락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분리개별화와 관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안정 애착을 형성할수록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Marrone,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 애착의 정서경험이 자율적인 행동변화를 이끌고 이는 긍정 및 부정 정서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아보려고 한다.

한편 부모와 정서적인 애착이나 분리개별화가 잘 이루어질 경우, 실제 아동의 행동에서도 자율성이 잘 발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행동적인 자율성을 통해 알아보았다. 행동적 자율성은 가정 내에서 부모의 의견과 독립적으로 아동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김경희, 2002). 즉 어떤 물건을 살지, 어떤 옷을 살지, 어떤 친구를 사귀지, 여가와 휴식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김경희(2002)는 자율성을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선택하는 성향이라고 정의 내렸다. 그에 따라 자율적 행동의 평가요소를 자주적 의사결정과 자기표현, 자조적 행동이행으로 구분하였다.

원래 자율성의 개념은 행동적 자율성, 정서적 자율성으로 구분되어 사용하나(Holmbeck & O'Donnell, 1992),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자율성이 분리개별화와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행동적 자율성만을 국한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애착경험이나 분리개별화가 행동적 측면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부모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감정 상태를 유지할수록 구체적인 행동에서도 자율적인 선택과 자조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부가적으로 부모와 안정된 애착경험을 통해 친밀감을 많이 형성한 아동일수록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행동경향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분리개별화와 우울 간의 연구에 따르면, 분리개별화 수준이 낮고, 대인관계에서 의존성이 높을수록 우울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Mahler

(1975)는 의존적 우울에서는 대상관계가 미분화되어 공생적인 특징을 갖는 분리개별화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았다. 박규상(2008)은 대학생 대상자로 분리개별화와 우울을 알아보았는데 분리불안이나 공생수준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의존적 우울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후기의 경우에도 이러한 분리개별화의 문제가 우울이나 불안 같은 부정정서와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연구들이 생의 초기 애착관계가 이후 아동기의 불안이나 우울, 공포와 같은 부정정서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Kobak & Sceery, 1994; Muris, Peter, Meesters, Marion & Zwambag, 2001). Armsden과 Greenberg(1987)은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을 경험할 경우 이후 아동이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완충적인 역할을 한다는 완충역할가설(buffering hypothesis)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안정 애착은 그 자체로 아동으로 하여금 정서적인 충만감, 행복감을 경험하게 하므로, 이러한 관계경험은 내재화되어 이후로도 계속 긍정정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반면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 경험은 그 자체로 긴장과 불안감을 유발하며, 이후로도 자신의 부정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타인이나 환경으로부터 위안과 지지의 자원을 활용하지 못한다(Valerie, Whiffen, Kallos-Lilly & MacDonald, 2001). 따라서 낮은 생활만족도, 대인관계 갈등, 부정적 자기개념, 우울증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Hortacsu, Cesur & Oral, 1993).

문경주(2004)는 자율성과 우울에 관련하여 청소년의 자율성 욕구를 부모가 허락하지 않고 심하게 통제할 때 우울이나 일탈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자신의 정체감이나 자유로운 관계 경험이 허용되지 않을 때, 자신의 판단이나 느낌보다는 타인이나 환경의 요구에 더 민감해지면 서, 예민해지고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적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이나 분리개별화가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경험이기 때문에 긍정 및 부정 정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요사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긍정심리학에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은 중요한 주제이며, 주관적 안녕감의 정서적 요소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이다(Diener, 1994). 즉 행복감, 편안함은 긍정 정서이고, 우울, 불안, 분노는 부정 정서이다.

특히 긍정정서는 부정정서의 동일한 양극단의 반대편에 위치한다고 생각되어 부정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동적으로 긍정정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생각은 일부 틀린 것으로 밝혀졌다. 긍정 정서와 부정정서는 작동기제나 적응 기능이 상당 부분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권석만, 2008).

이와 관련하여 Fredrickson(1998, 2004)은 부정정서와 긍정정서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즉 부정정서가 우리에게 위협을 알리고 반응범위를 좁혀서 위협에 대처하도록 하는 반면, 긍정정서는 안전함 알려주면서 대처범위를 넓혀주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부정적 정서경험은 현재의 위협에 대처하도록 하는 반면, 긍정적 정서경험은 미래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주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긍정정서를 경험할수록 적응적 행동으로 이끄는 행동경향성이 높아지는데, 예를들어 기분이 좋은 상태일수록 대인관계에서 적대적 태도가 줄어들고 잘 대처할 수 있으며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차 분리개별화기가 시작되는 시기인 초등 고학년(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에게서 친밀감, 유대감과 같은 애착을 많이 경험할수록 긍정 정서를 많이 경험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부모와의 정서적인 분리개별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수록 행복하고 편안한 긍정 정서를 유의하게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관계성과 분리개별화의 정서적 안정감이 결국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행동자율성을 높여주고 이로 인해 긍정 정서 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이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 방 법

### 참여자

총 4개의 광주시 소재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였다.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례를 제외하고, 남학생 104명, 여학생 10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12.38세였다(표준편차 1.03).

### 측정 도구

**분리개별화.** 아동의 분리개별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Levine, Green 및 Millon(1986)의 분리개별화 척도(SITA: Separation-Individuation for Adolescence)를 초등학교 6학년에게 적합하도록 김세영(2004)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응답 형식은 5점 척도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분리개별화의 어려움을 나타낸다. 8개의 하위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공생관계(7개문항, ‘내 부모님은 나를 너무 잘 아셔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훤히 짐작하신다’ 등 강한 의존욕구와 관련된 문항으로 공생단계의 특성을 측정함), 의존부정(12개 문항, ‘나는 아주 따뜻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 등 의존욕구에 대한 부정으로서 공생단계의 방어전략을 측정함), 분리불안(14개문항, ‘혼자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 겁이 난다’ 등 부모와 떨어져 스스로 생활해 가는 상황에 대한 불안에 관한 내용으로서 재접근기의 특성을 측정함)의 3개 하위요인의 33문항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리개별화의 설명은 Mahler(1975)의 이론을 근거로 이루어졌는데, 공생기에서 분리개별화기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분화기, 연습기, 재접근기, 대상항상성 단계를 거친다. 즉 분리개별화의 과정은 발달의 취약성이나 퇴행적 요소가 감소하거나 없어지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설명에 적절한 하위요인 문항을 선정하여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반응과 상태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그리고 동일 문항을 아버지와 어머니에 해당하여 각각 실시하였다. 아버지 분리개별화의 신뢰도계수  $\alpha$ 는 .82이고, 어머니 분리개별화는 .86이었다.

**애착척도.**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부모 및 또래척도(Inventory of Parents and Peer Attachment)를 박현선(2005)이 만 11-12세 아동에게 맞도록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10문항)과 신뢰감(9문항)의 두 하위척도를 실시하였다. 의사소통은 부모와 아동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자유롭게 편안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신뢰

차원은 부모가 아동을 믿어준다고 느끼고 아동도 부모를 믿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5점 척도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안정 애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문항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분리하여 따로 질문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는 아버지 애착은 .81, 어머니 애착은 .83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행동자유성.** 자율성의 행동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두 개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1)자율성검사. 김경희(2002)가 초등학교의 자율적 행동을 측정할 목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5점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자주적인 의사결정(12문항, ‘나는 어떤 일이든 내 스스로 결정한다’ 등 타인의 간섭에 의존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행동특징을 평가함), 자조적인 행동이행(12문항, ‘나는 학급회의 시간에 나의 의견을 잘 발표한다’ 등 자기가 원하거나 목표로 세워 놓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 행동을 조정하는 능력을 측정함)의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계수는 .76였다.

(2)자기결정능력검사. 김정권, 조인수, 문태형, 김혜경(2000)이 The ARC's self-determination Scale(Wechmeyer & Kelchner, 1995)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행동자유성문항(17문항)을 실시하였는데, 문항의 예로는 ‘나는 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 등 일상 생활에서 개인관리와 여가와 휴식 및 자신의 표현에 있어서 자율적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척도로 신뢰도계수는 .81이었다.

**긍정 정서.** Watson, Clark 및 Tellegen (1988)이 개발한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척도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 바탕으로 이은경(2006)이 아동 정서경험 척도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 정서문항 10개를 사용하였다. 4점 척도이고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계수는 .75였다.

**행복감.** 아동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이정화(2005)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으로 가정환경 11문항, 자아특성 8문항, 능력 6문항, 대인관계 5문항이었다. 4점 척도이며, 본 연구의 신뢰도계수는 .92로 높은 편이었다.

**우울.** 아동의 우울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Beck(1976)의 성인용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를 조수철·김영식(1990)이 다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증상 즉, 우울정서, 행동장애, 흥미상실, 자기비하, 생리적 증상의 5가지 범주를 포함한다. 지난 2주일 동안의 자신의 기분상태를 스스로 평가하며 3점 척도이고 총 27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의 신뢰도계수는 .92로 높게 나타났다.

**불안.** Spielberger의 아동용 상태-특성 불안(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1979; STAIC) 중 특성불안을 조수철과 최진숙(1990)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점 척도로 신뢰도계수는 .91로 양호하였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spss 15.0 for windows와 AMOS 7.0을 사용하였다.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척도의 하위 요인 점수를 측정변수로 하여 잠재변인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NFI(Normal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부가적으로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직접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여 Sobel(1982) 검증을 수행하였다. Sobel 검증 시 분자는 각각 매개효과의 추정치, 분모는 매개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표준오차(SE: standard error)를 나타내며, 분모의  $SE_a$ 와  $SE_b$ 는 각각 추정치 a와 b에 대한 표준오차 값이다.  $Z_{ab}$ 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을 때 영가설이 기각되므로 매개효과는 유의하다고 해석한다.

## 결 과

### 각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리개별화, 애착, 자율성,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버지분리개별화는 어머니분리개별화,  $r=.51, p<.001$ , 우울,  $r=.33, p<.001$ , 불안,  $r=.37, p<.001$  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아버지애착,  $r=-.56, p<.001$ , 어머니애착,  $r=-.35, p<.001$ , 행동자율성1,

$r=-.22, p<.001$ , 행동자율성2,  $r=-.16, p<.01$ , 긍정 정서,  $r=-.20, p<.001$ , 행복감,  $r=-.41, p<.001$ 와 부 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와 정서 적 관계에서 독립감을 느끼는 아동일수록 어머니 와 분리개별화가 잘 이루어지고, 안정 애착을 형 성하며,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긍정 정서를 자주 느낌을 시사한다. 어머니 분리개별화에서도 아버 지 분리개별화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어 머니와의 정서적 관계에서 분리가 잘 되는 아동 이 부모와 애착관계가 돈독하고, 행동도 자율적이 며, 긍정정서를 많이 느꼈다 (아버지애착,  $r=-.45, p<.001$ , 어머니애착,  $r=-.61, p<.001$ , 행동자율성1,  $r=-.27, p<.001$ , 긍정정서,  $r=-.19, p<.001$ , 행복감,  $r=-.37, p<.001$ , 우울,  $r=.31, p<.001$ , 불안,  $r=.30, p<.001$ ).

애착에서도 아버지와 애착이 잘 이루어진 아

동은 자율적 행동을 잘 하고, 행복감을 높게 보고 하며, 우울이나 불안을 적게 보고하였다(행동자율 성1,  $r=.49, p<.001$ , 행동자율성2,  $r=.29, p<.001$ , 긍 정정서,  $r=.31, p<.001$ , 행복감,  $r=.52, p<.001$ , 우 울,  $r=-.46, p<.001$ , 불안,  $r=-.45, p<.001$ ). 어머니 와의 애착경험이 안정적일수록 자율적 행동을 하 고, 우울이나 불안은 낮으며, 행복이나 긍정 정서 를 많이 표현하였다(행동자율성1,  $r=.31, p<.001$ , 행동자율성2,  $r=.34, p<.001$ , 긍정정서,  $r=.29, p<.001$ , 행복감,  $r=.47, p<.001$ , 우울,  $r=-.49, p<.001$ , 불안,  $r=-.39, p<.001$ ).

부모와의 분리개별화와 애착은 행동 자율성 및 긍정정서, 부정정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 련이 있음을 지지한다. 따라서 연구자가 가정환 매개 모형을 검증하기에 자료가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1. 부모 분리개별화, 애착, 자율성, 긍정정서, 행복감, 우울, 및 불안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와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9	10
1. 부분리 개별화	-									
2. 모분리 개별화	.51**	-								
3. 부애착	-.56**	-.45**	-							
4. 모애착	-.35**	-.61**	.49**	-						
5. 행동자율 성1	-.22**	-.27**	.29**	.31**	-					
6. 행동자율 성2	-.16*	-.13	.29**	.34**	.46**	-				
7. 긍정정서	-.20**	-.19**	.31**	.29**	.23**	.32**	-			
8. 행복감	-.41**	-.37**	.52**	.47**	.39**	.51**	.64**	-		
9. 우울	.33**	.31**	-.46**	-.49**	-.37**	-.49**	-.54**	-.72**	-	
10. 불안	.37**	.30**	-.45**	-.39**	-.32**	-.36**	-.28**	-.51**	.67**	-
평 균	83.50	82.24	52.67	54.39	49.93	32.21	27.45	58.29	15.93	31.42
표준편차	6.67	6.79	4.47	4.40	5.67	5.70	7.11	10.96	3.61	7.95

\*  $p<.05$ , \*\* $p<.01$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들의 적합도를 구조 방정식 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분리개별화가 자율성을 부분매개하여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 모형과 대안모형인 분리개별화가 자율성을 완전매개하여 긍정 및 부정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를 보면 부분매개 모형을 검증한 결과 각 변인간 경로계수는 분리개별화가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로 가는 경로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그림 1).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chi^2(df=15, N=211)=31.66, p=.01$ 로 유의하였으며, CFI=.96, TLI=.91, NFI=.94로 기준치인 .90이상이며 RMSEA=.07로 허용치인 .08이하로 적합도 수준이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안모형으로서 분리개별화와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간의 직접 경로를 제외한 완전 매개 모형을 검증한 결과, 전반적인 적합도 수준은  $\chi^2(df=15, N=211)=33.81,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다른 적합도 지수인 CFI=.96, TLI=.92, NFI=.93로 기준치인 .09 이상이며 RMSEA=.06 로 허용치인 .08이하로 적합도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그림 2).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미세한 수준에서 완전매개 모형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chi^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분매개 모형과 완전매개 모형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_{diff}(2)=1.09, ns$ . 그러나 모델의 간명성과 분리개별화에서 정적 및 부적 정서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완전매개 모형이 분리개별화와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부가적으로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직접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분리개별화가 긍정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율성의 매개효과가 의미있게 나타났다.  $Z=-3.30, p<.01$ . 그리고 분리개별화가 부정정서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자율성의 매개효과도 유의미하였다.  $Z=3.49, p<.01$ .

표 2. 분리개별화의 부분매개모형, 완전매개 모형의 적합도 지수 결과

모형	$\chi^2$	df	TLI	CFI	NFI	RMSEA
부분매개모형	31.66	15	.91	.96	.94	.07
완전매개모형	33.81	17	.92	.96	.93	.06

주. TLI= the Tucker-Lewis index; CFI= the comparative fit index; NFI=normal fit index; RMSEA= the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표 3. 애착의 부분매개 모형, 완전매개 모형의 적합도 지수 결과

모형	$\chi^2$	df	TLI	CFI	NFI	RMSEA
부분매개모형	21.25	15	.97	.98	.96	.04
완전매개모형	28.46	17	.95	.98	.95	.05

주. TLI= the Tucker-Lewis index; CFI= the comparative fit index; NFI=normal fit index; RMSEA= the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애착이 자율성을 부분매개하여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 모형과 대안 모형인 애착이 자율성을 완전매개하여 긍정 및 부정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검증을 하였다.

부분매개 모형을 검증한 결과(표 3) 각 변인 간 경로계수는 애착이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로 가는 직접 경로가 유의하였으나 자율성의 매개효과가 의미있게 도출되지 못하였다(그림 3).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X^2(df=15, N=211)= 21.25, p=.13$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하였고, 권장되는 적합도 지수인 CFI=.98, TLI=.97, NFI=.96로 기준치인 .90이상이며 RMSEA=.04로 허용치인 .08이하로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분매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본 모형은 기각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모형으로서 애착의 완전매개 모형을 검증한 결과(그림 4), 전반적인 적합도 수준은  $X^2(df=17, N=211)=28.46, p=.04$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다른 적합도 지수를 알아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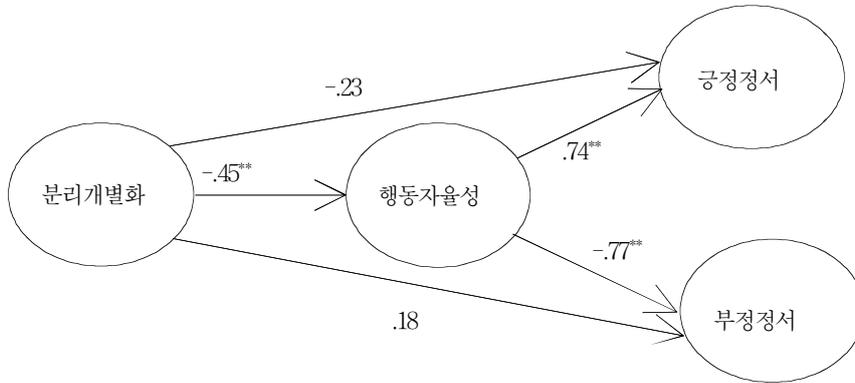


그림 1. 부분매개모형검증(분리개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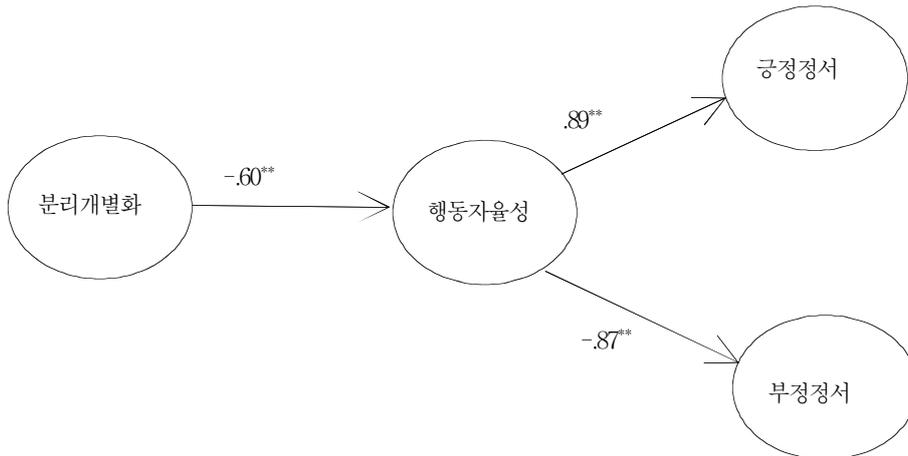


그림 2. 완전매개모형검증(분리개별화)

CFI=.98, TLI=.95, NFI=.95로 기준치인 .09 이상이며 RMSEA=.05 로 허용치인 .08이하로 적합도 수준이 양호하였다. 두 모형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X^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완전매개 모형과 부분매개 모형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X^2_{diff}(2)=3.11, p<.01$ . 따라서 부분매개 모형에서 자율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을 감안할 완전매개 모형이 애착과 정적 및 부적

정서 간의 관계를 적합하게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직접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애착이 긍정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율성의 매개효과가 의미있게 나타났다.  $Z=3.63, p<.01$ . 그리고 애착이 부정정서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자율성의 매개효과도 유의미하였다.  $Z=-3.91, p<.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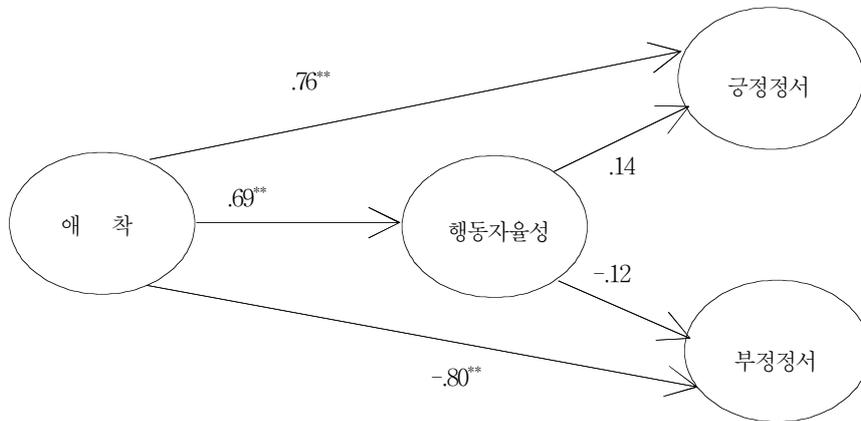


그림 3. 부분매개모형검증(애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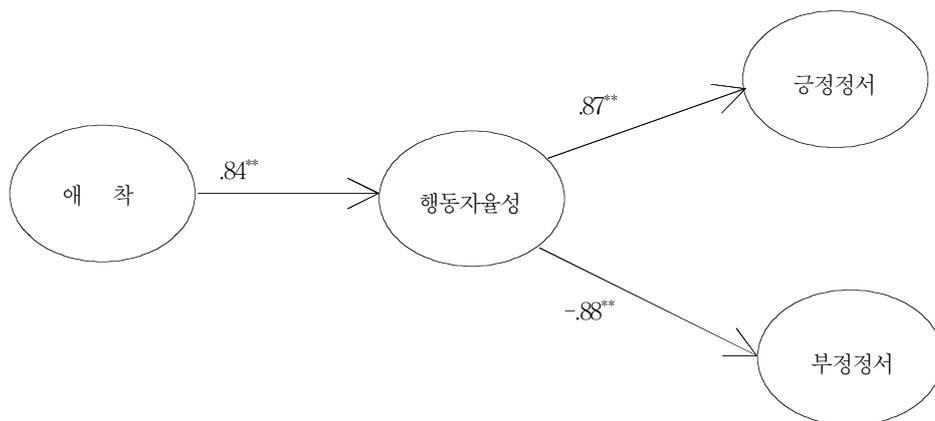


그림 4. 완전매개모형검증(애착)

## 논 의

연구결과 아동의 분리개별화는 행동자율성을 매개로 하여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때 행동적 자율성은 완전 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리개별화가 우울이나 불안에 영향을 직접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였다(박규상, 2008). 아마도 기존 연구가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차이에 일부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청소년이나 성인과 달리 아동은 여전히 분리개별화의 초기에 해당되며, 개별화의 욕구가 유의하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애착은 긍정 정서나 부정정서에 직접 효과가 있으나 분리개별화는 그렇지 않은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개별화는 부정정서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분리개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행동적 자율성이 적어질 때 부정정서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아동후기에 부모와 정서적으로 밀착되는 것이 직접적으로 아동의 우울감을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않지만, 이와 더불어 행동적으로 많은 통제를 가할 때, 아동은 불행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행동적 통제란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용돈을 사용하거나, 물건구매하기, 머리모양 선택하기, 옷차림 선택하기, 친구 관계맺기와 같은 활동을 할 때 부모에게 규제를 받는 것이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부모와의 갈등은 초기 청소년기에 최고조에 이르며 이후에 점차로 감소한다고 한다(Montemayor, 1983). 본 연구의 대상자인 12세 아

동은 아동후기에 해당하면서 청소년의 초기에도 해당되므로 이 시기가 자율적인 선택을 놓고 부모와의 갈등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Laursen, Coy 및 Collins(1998)은 초기 청소년기에 갈등이 최고조로 빈번하고 후기 청소년기로 갈수록 갈등이 줄어들지만, 강도 면에서는 반대로 서서히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부모와의 갈등이 많을수록 비행(Tomlinson, 1991)이나 우울감(Forehand et al. 1988) 등의 부적응 문제를 많이 보이고 있다.

한편 부모가 아동에게 행동적 자율성을 부여해줄 때, 아동이 행복이나 만족감 같은 긍정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 이처럼 아동이 자율성에 대한 욕구를 크게 느낀다는 것은 지금까지 부모의 통제 하에서 결정되었던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결정권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

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정도의 지나친 부모 통제는 낮은 자존감과 자기불신을 유발한다(Kerr & Stattin, 2000). 유사한 맥락에서 아동이 자율적 행동을 하게 될수록 자존감이나 자기확신감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확신감이란 자신에 대한 확실한 정체감이나 확실감을 가지는 것이다(Baumgardner, 1990). 자기확신이 높은 사람은 환경과 미래에 대한 자기통제감이 향상되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한다. 자기확실성이 낮을 경우, 통제 소재를 외부에서 찾게 되므로 가변성이 높아지고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자기관련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우울이나 불안을 더 쉽게 느낄 수 있다고 한다(Brockner, 1988).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부모와의 적절한 정서적 분리감을 가지면서 행동

적으로도 적정 수준의 자율성을 인정받을 때, 아동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통제감이 높아져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고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이 시사된다.

한편 반대로 지나칠 정도로 자율성을 허용하였을 때, 과연 아동의 긍정정서가 높아질 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아마도 아동은 부모가 자신의 행동에 무관심하고 적절한 행동방침을 내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결핍감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적정 정도의 자율성은 발달을 촉진시키지만 지나친 정도는 오히려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Garber & Little, 2001). 따라서 적절한 정도의 자율성의 허용은 발달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Poole과 Gelder(1984)도 행동적 자율성에 대한 장려는 아동, 청소년의 발달적 시기와 가정환경, 부모특성 등 다양한 맥락 속에서 그 강도를 결정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자율성의 개념은 방치나 방관이 아닌 인격적 대우나 존중을 포함하고 있어야겠다.

애착이 긍정 및 부정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서 행동자율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 애착은 긍정 및 부정 정서에 직접 효과가 있었으며, 행동자율성은 완전매개 효과가 있었다. 후기 아동기에서 애착의 영향은 만족감이나 행복감과 직결되어 매우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즉 아동은 부모와 정서적인 유대감을 통해 안전감을 획득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Toth와 Cicchetti(1996)는 안정 애착을 보인 아동이 불안정 애착을 보인 아동보다 자기체계(self-system)가 더 발달되어 있고, 자기에 대한 긍정적 표상이 나타나고 유능감을 더 크게 지각하며, 우울증상을 덜 보였다고 하였

다. 이외에도 안정 애착이 긍정적 대인관계(Kerns, Klepac, & Cole, 1996), 자기확신감(Walld & Caulfield, 1998), 자아 탄력성(Waters, Hamilton & Weinfield, 2000)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이전 결과는 초기 부모관계 경험의 중요성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에서 애착경험은 행동 자율성에 유익한 영향을 미쳤는데, 부모가 수용적이고 반응적이며 독립을 격려하는 안정애착일수록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자율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안정적 애착의 경험이 아동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지만, 이와 더불어 행동적 자율권을 허용해 줄 때 만족감이 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Papini와 Roggman(1992)는 안정애착아동이 낯선 상황 실험에서 우울과 불안 수준이 낮으면서, 새로운 상황에서 지각된 유능감을 높게 느끼면서 도전 행동을 많이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 관계에서 안전감을 많이 느낀 아동일수록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잘 극복하고 회피하기보다는 행동적 시도를 많이 하면서 유능감을 높임에 따라 긍정 정서가 높아진다는 본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내재적 동기로도 설명할 수 있겠다. 동기이론에서 내재적 동기는 우리가 외부 보상없이 자신의 활동 자체를 통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Kasser & Ryan, 1996). 그리고 내재적 동기를 구성하는 세가지 기본적 욕구로 첫째, 유능성, 둘째, 관계성, 셋째 자율성을 언급하였는데, 이중 관계성과 자율성은 본 연구의 주제인 애착과 분리개별화와 각각 연관성이 높다. 따라서 타인과 친밀한 정서적 애착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안전감을 획득하면서 이와 동시에 적절하게 분리되고 정서적으로나 행

동적으로 서로 독립이 허용될 때 비로소 인간의 내재적 동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내재적 동기가 높은 사람은 창의적인 활동 수준이 높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구력있게 목표를 달성하는 경향이 높으며, 전반적으로 활기 있고 행복감을 더 많이 보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Ryan과 Deci(2000)는 내재적 동기를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정신이 있으며, 자신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성향'으로 인간의 긍정적 속성이라고 간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시사되는 점은 건강한 부모관계를 통해 아동 개인이 내재적 동기를 확립하게 되면 이어서 다가오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들어 주목을 받고 있는 긍정 정서의 개발은 여러모로 유익하다. 긍정 정서는 부정정서의 생리적 흥분이나 긴장의 효과를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으며 스트레스 반응으로부터 쉽게 평정상태로 되돌아오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다(Fredrickson & Levenson, 1998). 이외에도 행복한 정서 상태는 또래 관계에서 더 긍정적이고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공격성을 줄여준다. 또래 관계의 향상은 학업이나 기타 일의 능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Isen, 2001). 이는 요즘 초등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집단 따돌림이나 학업스트레스와 같은 아동기 심리적 행동적 부적응 문제를 다루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긍정정서 개발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적절한 양육 태도로부터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대의 부모들은 여전히 아동기 자녀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허용해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문화권에 비해 밀착된 부모관계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 후기에 적절한 부모 자녀간의 분리감과 자율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분리개별화 및 자율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동 관련 프로그램이나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주관적으로 보고한 질문에 근거하여 분리개별화나 애착을 측정하였다. 분리개별화나 애착은 심리내적 특성으로 개별 면접이나 관찰과 같은 방법이 추가될 때 더욱 정확성이 높아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의 문항이 초등학생에게 맞게 수정되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아동의 분리개별화를 측정할 수 있는 아동용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둘째, 본 연구의 기본 모형은 아동기 정서경험을 단순화시켜 설명한 경향이 있다.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도 우울과 불안만을 측정하였을 뿐, 분노나 적대감과 같은 다양한 부정정서를 측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서 측정이 필요해 보이고, 대상자의 연령군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애착이나 분리개별화가 자율감이 미치는 경로를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적정 수준의 분리개별화에 대한 세밀한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 참 고 문 헌

곽민정 (2005). 초중등학생의 심리사회적 발달 수준 및

- 분리개별화 과정에 따른 발달의 분기점.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학지사
- 김세영 (2004). 아동의 분리개별화가 성취동기 및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권, 조인수, 문태형, 김혜경 (2000). 발달지체청년을 위한 자기결정능력 검사의 표준화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39, 99-126.
- 문경주 (2004). 청소년기 자율성 욕구와 부모 허용간 불일치가 우울 및 이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규상 (2008). 자기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분리개별화 수준 및 대인관계성향의 차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상당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 (2005).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친구관계의 질 및 이성교재의 양상. 가톨릭대학교상당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희정 (2004). 기혼여성의 가족분화 및 분리개별화 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계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이양희 (2006). 아동용 정서경험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 93-115.
- 이정화 (2005). 초등학생의 행복감 측정을 위한 도구개발. 공주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 (1998). 애착에 대한 어머니의 내적 작동모델, 남편에 대한 애착 및 자녀의 생활만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 121-133.
- 조수철, 김영식 (1990). 한국형 소아우울척도 개발. 대한 신경정신의학, 29, 943-956.
- 조수철, 최진숙 (1990). 소아 불안의 측정. 대한신경정신의학, 29, 691-702.
- 조화진 (2004). 부모와의 애착 및 분리개별화가 대학생 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rmsden, G. & Greenberg, M.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aumgardner, A. H. (1990). To know oneself is to like oneself: Self-certainty and self-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1062-1072.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los, P. (1962). *On adolescence*. New York: The Free Press.
- Blos, P. (1979). *The adolescent passag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Brockner, J. (1988). *Self-esteem at work*.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Erikson, E. E. (1963). *Childhood and society*(2rd Ed.). New York: Norton.
- Forehand, R., Brody, G., Slotkin, J., Fauber, R., McCombs, A. & Long, N. (1988). Young adolescent and maternal depression: Assessment, interrelations, and family predicto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422-426.
- Fredrickson, B. L. (1998). What good are positive emo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 300-319.
- Fredrickson, B. L. (2004).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 359, 1367-1377.
- Fredrickson, B. L. & Levenson, R. (1998). Positive emotions speed recovery from the cardiovascular sequelae of negative emotions. *Cognitive and Emotion, 12*, 191-220.
- Freud, S. (1933). New introductory lectures on psychoanalysis. In J. Strachey (Ed. and Tran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 of Sigmund Freud*, Vol. 22. London: Hogarth.
- Garber, J. & Little, S. (2001). Autonomy and adjustment in young adolesc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6*, 355-371.
- Holmbeck, G.N. & O'Donnell, K. (1992). Discrepancies between perceptions of decision making and behavioral autonomy. In R.L. Paikoff(Ed.), *Shared views in the family during adolescence*(pp. 51-70). San Francisco: Jossey-Bass.
- Hortacsu, N., Cesur, S. & Oral, A. (1993). Relationships between depression and attachment styles in parent and institution reared Turkish children.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4*, 329-337.
- Isen, A. M. (2001). An influence of positive affect on decision making in complex situations.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1*, 75-85.
- Kerns, K., Klepac, L. & Cole, A. (1996). Peer relationships and preadolescent's perceptions of security in the child-mother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2*, 457-466.
- Kasser, T. & Ryan, R. (1996). Further examining the American dream: Differential correlate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280-287.
- Kerr, M. & Stattin, H. (2000). What parents know, how they know it, and several forms of adolescent adjustment: Further support for a reinterpretation of monito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 366-380.
- Kobak, R. R. & Sceery, A. (1994).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Laursen, B., Coy, K. & Collins, W. (1998). Reconsidering changes in parent-child conflict across adolescence: A meta-analysis. *Child Development, 69*, 817-132.
- Levine, J., Green, C. & Millon, T. (1986). The separation-individuation test of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0*, 123-137.
- Wells, L. & Marwell, G. (1976). *Self-esteem: it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Beverly Hills, CA: Sage.
- Mahler, M. & Pine, F. & Bergman A.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New York: Basic Books.
- Mahler, M. (1963). Thoughts about development and individuation. *Psychoanalytic Study of Child, 18*, 307-324.
- Mahler, M. (1982). Thoughts in the emergence of the sense of self,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body self.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30*, 827-848.
- Marrone, M. (2000). Attachment and interaction. New York: Kingsley Publishers. / 김민희 역. (2005). 애착과 심리치료. 서울: 시그마프레스.
- Montemayor, R. (1983). Parents and adolescents in conflict: All families some of the time and some families most of the tim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 83-103.
- Muris, P., Meesters, C., Marion, O., & Zwambag, L. (2001).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 attachment equality, and symptom of anxiety and depression in depression young

-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809-818.
- Papini, D. & Roggman, L. A. (1992). Adolescent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s in relation to competence, depression, and anxiety: A longitudinal study.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2, 420-440.
- Poole, M. E. & Gelder, A. (1984). Family cohesiveness and adolescent autonomy in decision-making. *Australian Journal of Sex, Marriage and the Family*, 5, 65-75.
- Ryan, R. & Deci, E.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Ryan, R. & Lynch, J. (1989). Emotional autonomy versus detachment: Revisiting the vicissitudes of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Child Development*, 60, 340-356.
- Sobel, M. E. (1986). Some new results on indirect effects and their standard error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s. In N. Tuma(Ed.), *Sociological Methodology 1986*(pp.159-186).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Spielberger, C. D. (1979). *Preliminary manual for the State-Trait Personality Inventory(STPI)*.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South Florida, Tampa.
- Tomlinson, R. K. (1991). Unacceptable adolescent behavior and parent-adolescent conflict.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8, 33-51.
- Toth, S. & Cicchetti, D. (1996). Patterns of relatedness, depressive symptomatology and perceived competence in maltreated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32-41.
- Valerie, Whiffen, Kallos-Lilly & MacDoald (2001).
- Wallad, V. & Caulfield, R. (1998). Attachment and at-risk infants: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Clinical Implication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6, 125-129.
- Waters, E., Hamilton, C. & Weinfield, N. (2000). The stability of attachment security from infancy to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General discussion. *Child Development*, 171, 678-683.
- Watson, D. Clark, L.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원고접수일: 2009년 1월 18일

게재결정일: 2009년 2월 28일

# The effect of parental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ttachment on positive emotion and negative emo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behavioral autonomy

Yong-Hee Kim

Kwang Ju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diating effects of behavioral autonom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separation-individuation / attachment and positive emotion /negative emotion. For these, 211 children ages 12 ( 104 boys and 107 girls in 6th grade) were assessed on parental separation-individuation, parental attachment, behavioral autonomy, positive affect, happiness, depression, anxiety. Data were analysed through structure equational modeling. The results indicated that behavioral autonomy mediated fully the effect of separation-individuation on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 But separation-individuation did not have direct effect on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 In conclusion, although level of separation-individuation was higher, elevated the level of behavioral autonomy was related to children's satisfaction and happy feeling. Additionally stable attachment directly affected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 And behavioral autonomy mediated fully the effect on attachment and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with suggestion for future study.

*Keywords:* separation-individuation, attachment, behavioral autonomy, positive emotion, negative emotion,